

11  
201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 양양소식

Vol. 294





# 양양소식

Vol. 294

## CONTENTS

### 양양소식 · 294호

| 발행일 2019년 11월 4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 의기양양

## 4 뉴스 브리핑

4 환경부 규탄 범 강원도민 쫓겨대회 펼쳐

5 김진하 양양군수□나도 치매 파트너□동참

현북면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68필지 본격 분양

6 수확의 기쁨 나누는 한마음대회로 풍성한 10월 보내

8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 사업 속도 낸다

양양군농수산물수출협회, 수출상담회 개최

## 9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0 의정소식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황금연어를 잡아라!



## 희망양양

- 12 기획취재 쌀 맛나는 양양 살맛나는 양양 '양양해뜨미'
- 14 ISSUE & PEOPLE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주) 설수산 안석영 대표 '육상해수 연어양식에 성공하다'
- 1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지역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다.

## 오감양양

-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서면 오색2리
- 22 맛있는 양양여행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양양 동철감'을 아세요

##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추천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mailto: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환경부 규탄 범 강원도민 궐기대회 펼쳐

### 근거 없는 부동의 및 강원도 홀대에 대한 규탄



지난 9월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통보로 지역사회의 분노와 반발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민을 주축으로 한 강원도민 3천여명이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오늘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 대회를 펼쳤다.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주관하는 이번 강원도민 궐기 대회는 환경부의 근거 없는 적폐사업 규정과 이어진 부동의 의견으로 강원도민을 기만해온 환경부와 책임자들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군민을 포함한 범강원도민이 한뜻으로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친환경적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부동의와 오히려 더 심각한 환경 및 생태 훼손이 발생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 협조적인 환경부의 지역민 기만 행태를 규탄하고, 환경보호를 빙자한 차별적인 개발제한과 기타 국책사업에서의 지역 홀대로 고통 받아 온 강원도민의 누적된 분노를 알렸다.

양양군민을 포함한 강원도민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양양 남대천 둔치에 모여 피켓과 머리띠 등을 두르고 집회 취지 설명 및 규탄성명서 낭독 등으로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어 전체 강원도민이 상여를 앞세우고 남대천 둔치에서 새한공업사, 군청 사거리를 돌아 다시 남대천 둔치까지 시가 행진을 통해 도민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다시 남대천 둔치에 집결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 모형에 대한 전 도민의 분노를 담은 화형식(화장식)으로 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집회에는 양양군청에서도 집회일정 동안 흑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202명의 공무원과 의료진을 파견하여 주민의 안전유도 및 집회 참가자 질서유지 차원의 행정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문의 오색삭도추진단 삭도행정담당  
Tel. 033-670-2530

## 김진하 양양군수 □나도 치매 파트너 □동참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김진하 양양군수와 배우자 이현주님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0월 22일 치매파트너증 및 공식 캐릭터 단비 배지 수여로 □나도 치매 파트너 릴레이 인증식을 가졌다.

□나도 치매 파트너는 강원도 치매 특화사업으로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초단체장, 기관장 등 지역인사들이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후 등록 인증과 함께 지역인사 2인 이상 추천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를 선두로 양양군 전 직원은 치매파트너로서 지역 내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로 치매 친화적 양양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나도 치매 파트너 릴레이 다음 주자로 고창호 양양소방서장과 이찬섭 강원속초경찰서 양양지구대장을 추천한다며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 확산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치매 파트너로 동참하여 치매가 있



어도 걱정 없는 양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문의 보건소 정신건강담당 Tel. 033-670-2496

## 현북면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68필지 본격 분양

현북면 중광정지구 신규(전원)마을을 조성해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갔다.

우리군은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 유치와 농촌 지역 활력화를 위해 교통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현북면 중광정리 291-4번지 일대 85,603㎡ 규모, 68 필지에 대해 지난 2017년 착공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했으며, 1필지별 분양가는 97,776,000~141,240,000원 수준이다.

분양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 지정 기간 내에 획지번호(1~68) 및 면적으로 계약 체결 후, 지적확정측량 실시결과 및 마을정비구역 변경 후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해 추후 잔금 납부 시 정산할 계획이다.

피분양자는 분양 후 1년 안에 착공해야 하며, 착공 후 1년 안에 주택 건축을 준공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건축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중광정지구는 교통 및 생활여건이 우수해 도시민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도시민 유치를 위한 거주 공간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도시계획과 전원도시담당 Tel. 033-670-2824

# 수확의 기쁨 나누는 한마음대회로 풍성한 10월 보내

## 지역주민은 물론 직장 근로자, 출향인사, 학생 등 참여



양양의 대표축제인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는 가운데 10월22일 손양면을 시작으로 양양군 6개 읍면의 한마음 대회가 개최돼 풍성한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22일(화)에는 '제16회 손양면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손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9일(화)에는 '제19회 현남면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현남중학교에서, 30일(수)에는 '제15회 서면 한마음 체육대회'와 '제17회 강현면민 한마음대회'가 각각 상평초등학교 운동장과 강현중학교 운동장에서 31일(목)에는 '제17회 현북면민 한마음축제'가 현북 풋살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와 더불어 양양군 읍면 중 유일한 읍 단위지역인 양양읍에서도 30일(수) 문화복지회관에서 제13회 '양양읍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면민 한마음 대회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끝낸 늦가을에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농과 생업으로 한 해 동안 수고로한 서로를 위로하면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주민주도형 행사이다.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 민속놀이와 체육경기,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을 펼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과 경품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잔치를 벌인다.

특히 면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각종 문화활동 등을 선보이는 공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각 면에 소재한 군부대 및 직장 근로자, 외지로 나간 자녀, 출향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화합의 분위기를 더한다.  
 손양면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손양초등학교 유치부의 깜찍한 율동과 학생들의 댄스 및 주민자치수강생들의 스포츠댄스로 흥을 더했으며, 서면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수리 노인회의 경로체조 및 용천리마을회의 노래공연을 진행해 박수를 받았다.

현북면민 한마음축제에서는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물놀이와 노래교실, 줌바, 켈트, 손글씨반이 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강현면민 한마음대회에서는 신나는 난타를 시작으로 라인댄스와 노래교실공연 및 강현면민속보존회의 농악공연이 펼쳐졌다.

또 현남면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경기장을 만국기로 장식하고 가훈 써주기, 다도, 양말공예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지난 달 강원도 경로당 대회에서 우승을 한 인구1리 경로당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현남중학교 학생과 함께 육상경기를 펼치기도 하였다.

한편, 문화복지회관에서 펼쳐진 양양읍민의 날 기념행사는 미스트롯 김나희 및 엄혜진, 강유진 등 초청가수 축하 공연과 경품추첨이 이루어지며 많은 읍민이 즐기는 풍성한 시간을 보냈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Tel. 033-670-2221



#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 사업 속도 낸다

## 양양읍 월리 산2번지 사업추진

우리군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에 나섰으나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해 10월 특별조정교부금에 이어 이달 산림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양양읍 월리 산2번지 일원 2,245㎡ 부지 면적에 대기실과 차고, 창고, 부대시설 등을 갖춘 2층 규모의 산불방지지원센터 1동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강원도 계약심사 및 관련 인허가 협의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산불진화대원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진화차량 및 장비 보관시설 확보 등을 통해 즉각적인 산불대응으로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Tel. 033-670-2714

# 양양군농수산물수출협회, 미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지난 21일 초청바이어와 상담회 통해 5개사 연간 30만 달러 규모 수출, 업무협약 체결 성과

양양군 농수산물수출협회(대표 함승우)를 통한 미국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양양군 수출협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가운데, 지난 21일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 내 대술영농조합법인 2층 회의실에서 바이어 꽃마USA를 초청해 대술영농조합법인, 오색한과 등 8개 업체가 참여한 1:1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8월 미국 최대 한인식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꽃마USA측에 의사를 확인해 성사가 되었다.

초청 바이어인 꽃마USA는 이외에도 MBC홈쇼핑채널 운영, LA코리아타운 내에 오프라인 매장 운영, 아마존 등록 벤더사 외 다수의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설악산그린푸드를 포함한 오색한과, 매홍엘앤에프, 서광농협, 대술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의 간편 국, 약과, 누룽지, 다시떡, 송이젤리 등 13개 제품을 계약하기로 했으며, 상담회 후 별도로 양양군농수산물수출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기존 거래처인 설악산그린푸드와 신규 발주 예정인 4개사의 수출 규모는 연간 30만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함승우 양양군농수산물수출협회장은 “이번 미국 수출을 계기로 관내 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담당 Tel. 033-670-2124



##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모두가 꽃이야~! 양양군 지역 아동센터 제5회 어울림마당
2.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사이클 경기에 출전한 양양군청 사이클팀 오민재, 김청수, 오제석 선수
3. 행복을 나누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4. 강현면 중복지, 회룡초교 학생들과 함께한 생명사랑 체험활동
5. 공수전초등학교에서 펼쳐진 작은극장, 국립극단의 연극을 관람했어요.
6. 대안노인회 양양군지회 게이트볼팀이 제8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에서 남자부 게이트볼 3위
7. 요리하는 남자~!! 가족과 나를 위한 힐링요리 시간을 가져요





##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7개 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까지 3일간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3건,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6억 4천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3만 4천원 등 3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은 그간 양양군 직영으로 운영되어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기관 위탁방식으로 변경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양군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최소화하고 재활용품 선별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택철 의원, 간사에 김의성 의원을 선출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군 실·과·소·단 및 읍·면까지 총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10월 23일 실시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여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26개 부서에 총 25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활동방향을 밝혔다.

##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

| 일 시              | 회의명  | 부의안건  |
|------------------|--|---|
| 11. 20.(수) 10:00 |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
| 11. 20.(수) 11:00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위원장□간사 선출, 회기결정(위원회 구성)   |
| 11. 21.(목) 10:00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
| 11. 22.(금) 10:00 |  | 복지과, 경제에너지과, 세무회계과 소관   |
| 11. 25.(월) 10:00 |  |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 소관  |
| 11. 26.(화) 10:00 |  | 산림복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소관                                     |
| 11. 27.(수) 10:00 |  | 오색삭도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
| 11. 28.(목) 10:00 |  |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
| 12. 2.(월) 10:00  |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 12. 3.(화) 10:00  | 복지과, 경제에너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   |
| 12. 4.(수) 10:00  |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 산림복지과, 환경과 소관                    |   |
| 12. 5.(목) 10:00  |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오색삭도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 보건소 소관         |   |
| 12. 6.(금) 10:00  | 농업기술센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   |
| 12. 9.(월) 10:00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12. 10.(화) 10:00 |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확정(위원회)               |
| 12. 13.(금) 10:00 | 제2차 본회의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 12. 13.(금) 11:00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간사 선출, 회기결정(위원회 구성)   |
| 12. 16.(월) 10:00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조례안 심사  |
| 12. 19.(목) 10:00 | 제3차 본회의  |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심의의결  |

※ 본 계획안은 의회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쌀, 맛 나는 양양  
살맛나는 양양

## 양양 해뜨미를 아시나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쌀 소비량은 61kg이다. 달라진 식문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이면 별다른 반찬 없이도 포만감과 행복감이 찾아온다. 허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뜨끈한 기운을 북돋워주는 기분이다. 쌀이 맛있어 살맛나는 양양 해뜨미를 먹어 봤다면 말이다.



### 우리 것이 최고예 국산품종 '맛드림'

잘 나가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에만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쌀을 비롯해 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쌀의 고급화를 위해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양양의 지명에서 유래한 해뜨미는 양양 대표 농산물로 2009년 개발돼 상표등록을 마치고 2차례 디자인을 변경해 사용 중이다. 현재 군의 쌀 재배면적은 1,635ha에서 11,645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54% 가량인 6,246톤은 직거래 및 자가소비로 판매되며 농협에서 34%에 이르는 4,000톤을 수매하고 나머지 12%는 공공비축미로 수매되고 있다. 주로 재배하는 품종은 중생종으로 맛드림이 65%이상을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1088ha에서 8,271톤을 생산됐다. 다음으로는 조생종 오대, 설향, 고향 품종이 순서대로 재배되고 있다. 특히 맛드림은 쌀 모양이 투명하고 보기 좋으며 꼬들하고 찰지며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최고로 맛있는 쌀이라 불리



는 고시히카리의 품질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재배환경에 적합하도록 2012년에 개발된 국산 품종이다. 입안에서 탄력이 있으면서 단단하고 속이 짙 찬 식감으로 식어도 맛있는 밥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해뜨미, 밥 맛이 좋은 이유

하지만 품종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쌀은 아니다. 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토양과 수질, 기후 등 지역마다 다른 조건들이 쌀의 품질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양 쌀을 맛본 사람들은 해마다 양양 쌀을 찾는 데는 이유는 뭘까. 양양의 쌀로 지은 밥맛이 우수한 조건은 바로 천혜의 자연

환경이다. 설악산에서 비롯한 맑고 깨끗한 공기, 남대천 수계의 하천 지류가 풍부하고 동해에서 불어오는 해풍, 풍부한 일조량과 강수량까지 쌀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까지 갖추고 있다. 비옥한 토양과 공해조차 없는 청정한 지역에서 재배된 해뜨미는 씹히는 질감이 좋고 차지고 기름져 양양의 대표적인 농산물이자 특산품이다.

## 쌀의 가치를 높여 우리 농업 지키기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급감했지만 그럼에도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다. 더욱이 쌀은 우리 농업의 상징이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해뜨미는 주로 4개 농협을 통해 출하되고 있다.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400톤, 강릉과 서울 등 하나로마트에서 1600톤이 소비되고 있으며, 쌀전업농연합회를 통해 490톤이 전국 도소매로 팔려 나가고 개별 소비자들은 양양물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또 포매리 친환경쌀생산자단체에서는 학교 급식 30톤, 농협을 통해 70톤을 출하 중이다. 또한 군에서는 농촌진흥청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전통주, 천연발효 쌀빵 등의 쌀 가공과 관련한 기술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군 자체사업으로는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을 통해서 쌀

을 이용한 술, 식초, 조청 제조 교육과 수제맥주 과정, 디지털 떡 과정, 치유음식 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했다. 우리 쌀 가공식품을 알리기 위해 양양문화제를 비롯한 야시장, 송이축제 현장 등에서 무료 시식·시음회를 추진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송림조산한과는 지난 9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지역 축제 현장과 전국 직거래 장터 등에서 매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해뜨미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 먹는 밥이기에 우리는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지도 모른다. 오늘 저녁은 갓 수확해 도정한 해뜨미 햅쌀로 지은 밥을 다시 보자. 윤기가 찰찰 흐르는 따끈한 밥 한 그릇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글·사진 : 편집부〉

ISSUE & PEOPLE \_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 쌀로 키운 대농의 꿈, 강원도 최초의 쌀전업농중앙회장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78만 톤으로 사상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2.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강현면 일대에는 수확을 앞둔 들판이 황금색으로 일렁인다. 설악산을 두르고 동해를 마당으로 삼은 들판에 낱알들이 탐스럽다. 갓 베어낸 벼단의 싱그러운 풀냄새와 묵직한 흙냄새가 진동하는 강현면 황금들판에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을 만났다.



### 쌀에서 찾은 희망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났던 김광섭 회장은 IMF가 터진 1997년 도시생활을 뒤로 하고 물치리로 돌아왔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1200평 규모의 벼농사에 발을 들인 것이다. IMF 이후 농업에 대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분위기 가운데 그는 재배면적을 늘려가며 6년 만에 농업소득을 3배 가까이 올렸다. 최신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수용하고 앞서가며 전문농업경영인의 길로 들어섰다. 군 보조사업을 통해 벼육묘장을 신축했고, 농업경영에 어

려움을 겪는 농가의 위탁영농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다. 농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기 위해 농업과 관련한 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쌀에서 희망을 찾아 나갔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쌀 시장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던 때였어요. 하지만 외국 농업인들은 규모화, 기계화가 주를 이루던 시대였거든요.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경지를 임차해서 재배면적을 늘려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1200평 규모로 시작했던 쌀농사

는 이제 12만평 규모가 됐어요. 대농의 꿈을 이뤘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밥맛 좋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뿌듯합니다.”

설악산 맑은 물에 해풍을 맞은 양양의 쌀은 어디에 내놔도 밥맛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해마다 믿고 직거래로 쌀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맛좋은 쌀의 특별한 비법보다는 눈 뜨면 논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해 논에서 퇴근한다는 그의 말처럼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일 것이다. 아흔아홉 번의 손길이 닿아야만 쌀 한



톨을 생산하는 만큼 농부의 피와 땀으로 지은 농사는 제값을 팔고 잘 파는 게 중요하다. 입소문을 비롯해 인터넷 등의 채널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직거래를 이어가는 자판매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배면적이 넓어지자 상시 직원을 고용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마련했다. 성실한 생활과 영농경영에 앞장서면서 2002년부터는 물치리 이장을 맡아 일을 했으며 우리 쌀 알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수확절마다 120포씩 어려운 이웃에 햅쌀을 나누는 일도 이어오고 있다.



## 강원도 최초의 쌀전업농중앙회장

김광섭 회장은 2008년부터는 한국쌀전업농 양양군회장을 시작으로 강원도회장을, 2016년부터는 중앙회장으로 선출돼 쌀산업 발전과 쌀전업농 권익 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적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중앙회장이 돼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에는 떨어졌던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 매년 하락하던 쌀값이 평년수준을 회복했다.

“벌써 취임 4년차가 됐습니다. 어깨가 무거웠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11만 킬로미터를 찍으면서 전국을 누볐어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청와대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천리길을 마다하고 찾아가 목소리를 내고 정책제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는 길은 농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다. 쌀전업농중앙회장이자 현직 농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는 항상 기술향상과 새로운 농법을 배우기 위해 애쓰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장서 2006년 균정발전 유공표창, 2012년에는 강원도농어업대상, 2013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농사일이 힘들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늘 일하는 게 즐겁고 농사는 노력한 만큼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되고, 그만큼 떳떳하고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곧 회장직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쌀,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죠. 농사짓다가 좋아하는 팽과리도 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이다. 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두가 쌀의 미래를 낙담했을 때, 그는 쌀에서 희망을 찾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강현면 농악대 상쇠인 그는 앞으로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가운데 팽과리를 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행복한 농부로 귀감이 되길 바란다.

〈글·사진 : 편집부〉



## 연어의 고장 양양에서 육상 해수 연어양식에 성공하다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7번지 (주)설수산의 안석영 대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현실로 이루어 내고 있다. 200평 양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비릿한 바다냄새와 함께 30여개의 수조속의 힘찬 연어들이 눈에 들어온다. 연어 치어들을 ‘아이들’이라 부르며 신바람 나게 일하는 (주)설수산 안석영 대표를 만나보았다.



안석영 대표는 10년 전 양양에 내려와 유통업을 하면서 연어와 인연을 맺었다. 연어치어를 들여와 육상수조에서 양식을 시작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치어들이 죽게 되었고 큰 상실감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포기하기 않고 매년 치어를 들여와서 연구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순차과정과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2018년 양양 손양면 도화리에 양식장 허가를 받고 12월 은연어 마리당 50~150g정도 되는 치어 1,000마리를 처음으로 들여와 해수 순차과정에서 90%의 성공률을 보였다. 또 지난 1월 500마리, 2월 2만마리를 순차적으로 들여와 95~98%의 생존율을 보이면서 기술을 축적했다.

(주)설수산은 양식장 입구수조에는 각종 자연산 활어를 넣어두어 바닷물의 상태까지 시시각각으로 확인하며 연어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



었다. 설수산이 운영하는 육상양식은 가두리 양식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고 연어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총 7차례 6만마리 이상을 들여와 성공적 순치 및 입부침으로 ‘연어 해수 순치를 위한 육상 해수양식장’ 특허출원까지 했다.

또 강도다리 양식도 성공해 시판하고 있으며 강도다리와 연어를 한수조 안에서 양식하는 복합양식에서도 성과를 거둬 특허 출원 신청 중에 있다.

지금에 오기까지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양식장 위치가 군사지역이다 보니 허가에 긴 시간이 걸리며 어려움도 따랐다. 초기에는 사업운영을 자부담으로만 운영해오다 올해는 양양군에 지원을 받아 양식장 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우연히 담수를 파기 전까지는 담수 부족으

로 활어차를 이용하여 하루 종일 물을 나르는 수고도 뒤따랐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안석영대표는 확신을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했다.

안석영 설수산 대표는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꾸준한 은연어 양식을 위해 3개월 격차로 발화난을 들여와 2020년에는 300~500톤, 2021년 1,000톤 생산을 목표로하고 연어의 고장 양양의 명성을 찾고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7일 솔비치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은연어 시식회에서는 은연어가 대서양 연어에 비해 느끼함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여 광어수준의 식감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 향후 ㈜설수산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글·사진 : 편집부〉

## 양양지역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다.



1 2  
3 4

1) 38도선 돌파(1950.10.1) 2)38선을 돌파하는 국군(1950) 3)1950년 10월8일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는 국군 행렬 (출처- 6.25전쟁 1129일 이준근 편저) 4)적 진지를 향하여 포격을 실시하는 유엔군 (출처- 6.25전쟁1129일 이준근 편저)

### 1. 북한의 남침준비

양양은 8.15해방 후 소련에 점령당하였고 현남면과 서면 일부만 남한에 속하게 되었다.

1948년 김일성은 수상으로, 남조선 노동당 지도자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남침을 준비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소련,중국과 군사 비밀협정을 맺어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비행기 등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중공으로부터는 중국군에 참여하였던 조선의용군(화북지방에서 일본과 싸웠던 중국군 제팔로군) 2~3만명을 지원받아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 2. 북한군의 이동과 부대배치

북한군 제5사단은 함경남도 나남에서 동해북부선 기차를 이용하여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하였다. 북한군 제 5사단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중공군에 편입되어 일본군과 전투를 하였던 전투경험이 많은 사단이었다.

탱크는 남대천 아카시아 숲속에 감추어 두고 기마부대는 양양중고등학교에, 포병부대는 양양도서관 자리에 주둔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남침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 3. 6.25당시 남한의 상황

영동지방 경비는 제8사단이 맡고 있었는데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와 21연대를 기간으로 강릉에서 창설된 부대로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흑진동(인제)까지 26km를 담당하고 있었다. 병력은 6,866명으로 경비 구역이 넓어 군인 2~3명에 지방 마을 청년들이 보조하여 경계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4일에는 전국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이하 국군의 고위간부들은 저녁 6시부터 서울 용산 국군회관

낙성식 파티에 참석하여 일요일 새벽에 잠자리에 들었고 8사단에서도 교육을 위해 포대장, 선임하사 급은 대부분 포병학교에 파견 중이었고 대대장도 육군본부에 출장 중이고 부대원은 농촌모내기 도우라고 2주간 휴가를 보냈다. 이런 상황이니 새벽에 남침한 북한군을 막기에는 너무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 4. 6.25전쟁 남침과 전투상황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사격과 더불어 북한군 주 공격부대가 현북면 기사문리 38도선을 돌파하여 주문진으로 진격을 개시하였고 또 다른 부대는 양양 영덕에서 서림지역을 공격하여 원일전리를 거쳐 남대천을 거슬러 강릉 소금강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 (1)잔교리 전투

국군 8사단 10연대 제2대대가 담당한 이 지역은 24일 저녁부터 내리가 시작한 비로 경계진지주변의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다. 잔교리 188고지에 포격이 시작되자 경계하던 제2대대는 전열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혼란의 회오리 속에 말려들었다. 04시35분에야 북분리 제7중대장으로부터 '적의 공격이 개시했다.'는 급보가 왔다. 곧 이어 제5중대, 제6중대장으로부터 급박한 전황 보고가 잇따르자 이후 연대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져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인구리 주민들의 피난을 도우면서 후퇴하였다.

##### (2)정족산 -진흥동의 전투

이 지역은 제8사단 제10연대 1대대가 경계하던 지역으로 북한군 제1경비단이 서림리 제9중대 정면을 공격하여 왔다. 9중대는 적과 교전중 중대장이 중상을 입고 적의 포대 공격이 집중되면서 포위당하자 분산된 채 철수 하였다. 제 6중대도 분산되어 철수 하였다.

##### (3)명지리 일대의 전투(제8사단 10연대 5중대 제2소대장 이흥진 중위 증언)

1950년 6월 25일 우리 소대는 명지리 일대를 새벽 4시 자고 있는데 포격소리에 깨었더니 282고지에 포탄이 비오 듯 쏟아진다는 보고였다. 133고지로부터 적이 새끼말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었다. 20명의 예비 병력을 이끌고 출동하며 어성전 중대장에게 보고 하였다. 05시에 적은 벌써 133고지를 탈취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30여분간 일진일퇴를 벌였는데 실탄이 거의 바닥나 후퇴 하였다. 장리의 제3소대와 통신이 두절되었으나 나중에 어성전리에서 합세하였다.

#### 4. 유엔군의 참전

1950년 6월 26일 4시(미국 25일 오후 2시) 유엔 안보리의 소집되어 북한군의 진격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 철수를 요구하고 6월 29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과 38도선 이북 군사시설 폭격을 명령하였다. 7월 1일 미군 선발부대가 부산에 상륙하고 7월 5일 오산에서 첫 교전을 치루고 7월 7일 유엔이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회원국들의 무력원조를 요구하여 미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에 참전하게 되었다. 8월 초(전쟁 47일차)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8월 11일(전쟁 48일차) 포항에서부터 북한군을 섬멸 격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0년 9월 15일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계속하였다.

#### 5. 양양 기사문리 38선 돌파한 날이 국군의 날

1950년 9월 29일 국군 제3사단은 삼척을 점령하고 9월 30일 38도 선상의 인구리에서 멈추고 북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통일이여야만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고 침략자를 격멸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할 한국 국민의 권리가 있다고 그의 신념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UN군 사령부는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다음날 모든 부대는 진격을 멈추도록 명령하였다. 국군도 38도선인 인구리에 정지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38도선을 돌파해 북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정일권 총장은 UN군과의 지휘체계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워커장군에게 동해안 전선의 전술적인 상황하에서 38도선 바로 북쪽의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 동의를 얻었다. 그리하여 국군 제1군단장은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38도 이북의 양양을 점령하라는 작전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1950년 10월 1일 05시 경 제3사단 23연대를 선봉으로 북한 인민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역사적인 38도선 이북지역의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날 10시경 양양을 탈환하였다. 전쟁이 시작한지 99일만의 일이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여 1956년에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다. <글 : 사진 : 문화원>

#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 양양군 서면 오색2리

오색찬란한 단풍 들었네~  
울긋불긋 단풍처럼 다양한 관광업으로  
조화로운 마을  
오색 케이블카 타고 누구나  
설악산 구경하면 더욱 좋겠네.



### 설악에 단풍 들었대요.



설악산 단풍이 10월 중순에 한계령을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오색리 단풍은 열흘 정도 후에 서서히 붉어진다. 그러면 올해 오색의 단풍 절정은 10월 마지막 주가 되는 셈이다. 설악산 단풍 소식이 들면 가을 단풍만큼 울긋불긋하게 단장한 관광객과 등반객들이 줄을 이어 오색리는 북새통을 이룬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과 점봉산 사이에 있는 남설악 오색지구는 설악에서 단풍이 가장 짙고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어 가을 단풍맞이객들이 즐겨찾기 때문이다. 오색약수는 감질나게 조금씩 솟아나고 있는데 등반객들은 톡 쏘는 약수를 한 모금 마시고, 맑은 계곡물에 탄성을 자아낸다.

단풍이 아직 이른 10월 중순에, 주말을 피해서 주 중에 오색리를 찾았는데 주차할 곳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그래도 즐거운 오색리 풍경이다.

### 30년 숙원사업, 케이블카 설치로 경기가 나아졌으면.

오색약수와 온천, 단풍으로 명성 높은 오색 2리는 4개 반 가운데 1만인 관터를 제외하고는 3개 반에 일반상가와 민박 펜션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다. 100가구에 3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대부분 30년 간 상업을 하며 동료애와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되고 있다. 오색지구는 8,90년대 최고의 약수와 온천으로 유명세를 높이며 가을철이면 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들이 찾던 곳으로, 호텔과 음식점 등으로 대단위 관광단지를 이루고 있다. 단

풍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주전골은 어느새 찾는 발길이 분주하고 더불어 매년 단풍철(올해는 9월 14일~11월 14일)까지만 운영하는 코스인 만경대 탐방을 위해 탐방예약제를 운영한다.

만경대는 지난 2016년 개방한 후로 인터넷으로 주 중에는 2천명, 주말이면 5천명 신청을 받는데, 정상에서 한눈에 굽어보듯이 설악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오색 2리는 이처럼 오색지구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한

마을이지만 그동안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며 지금은 예전의 명성만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해 약수터가 모두 사라져서 안타까움을 샀고, 겨우 복구가 되었는데, 2015년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었다. 오색2리 주민들은 고비를 겪으며 오색지구가 다시 명성을 되찾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준형 이장은 단풍철의 반짝 경기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한다.

“지난 2015년 8월 15일 흘림골 인사 사고 이후 오색은 어려움이 엄청 큼니다. 그때 이후 매출이 70%가 급감했어요. 오색2리가 복구되려면 30년 숙원사업이자 희망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예전의 오색의 명성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몇 년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유치를 위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단합하고, 정준형 이장은 그동안 세 번이나 삭발을 하면서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최근에 다시 좌절되면서 울분을 삼켜야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색 2리 주민들은 30년째 희망을 놓지 않고 오랜 바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관광비수기에 우리는 단합대회 합니다.

관광객을 맞이하고 상업을 하는 마을이어서 주민들이 일 년 열두 달 어느 하루 마음 놓고 쉬기 어렵지만, 봄이면 봄꽃 놀이로 주민들이 하나 되는 단합대회 겸 여행도 다녀온다. 올해는 삼척 맹방 레일바이크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관광 오는 모습만 보고 살지만 비수기에는 주민들이 함께 봄나들이를 하면서, 화합하며 여행하는 휴식의 시간이다.

관광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겪어온 마을주민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마을발전을 추진하는데 단합이 잘 된다. 특히 마을 이장 임기를 2년에 연임 1회로 4년 임기로 마을 조례화한 것도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데 더욱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오색약수와 온천, 단풍이 아름다운 최고의 마을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모아지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인절미 같은  
‘동철곶감’을 아시나요

‘고동선’이라고 하면  
알 듯한  
양양의 토종감(甘)

송이버섯에는 없는 일곱 가지의 장점과 5가지 덕목이 있으며 이중에서 예부터 효(孝)의 상징으로 여겼던 양양의 가을 하늘 아래에 탐스럽게 열린 과일 한 가지가 있다. 오래 살고, 좋은 그늘을 만들며, 새가 집을 짓지 않고, 벌레가 없으며, 단풍이 아름답고,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잎이 크고 거름과 글씨를 쓸 수 있는 일곱 가지의 장점을 가졌다는 감나무이다. 여기에 문무충효절(文武忠孝節)의 5가지 덕목(德目)까지 갖췄다고 하는데, 잎은 종이처럼 쓸 수 있어 문(文). 나무는 단단하여 화살촉으로 쓸 수 있어 무(武), 열매는 겉과 속이 똑같이 붉어 충(忠). 치아가 없는 노인도 능히 먹을 수 있어 효(孝)가 있으며, 늦가을까지 열매가 매달려 있어 절(節)을 갖추었기에 양양에서 나는 농 특산물 중에 이렇듯 감나무만 하게 칭찬을 받을 만한 과일나무도 없다.

## ‘고동선’이라 불렀던 양양의 토종감

여러 의미들을 감(甘)에 비유한 뜻이 꽤 그럴 듯하여 재미있는데, 요즘 들어 한창 뜨고 있는 양양의 ‘동철감’ 역시 일곱 가지 장점과 5가지 덕목(德目)을 갖춘 양양의 대표 브랜드 제철 과일이다. ‘동철감’은 본래 동해안 지역 일대와 강릉을 비롯, 양양에서 토종 감으로 불리던 ‘고동선’을 말한다. 끝부분이 뾰족하고 보기에도 큼지막한 ‘대봉감’과 달리, 항아리처럼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지금은 사라진 양양의 옛 토종감이었던 ‘고동선’의 새로운 이름이다. ‘단지감’이라고도 하였다. 집집마다 한두 그루씩 있어 가을마다 마당에 심어 놓은 단풍나무인 듯, 색깔 고운 감 잎사귀 속에 달덩이처럼 매달렸던 ‘고동선’이 추억의 옛 이름으로 속 깊게 맛있어져 가는 요즘이다. 동철감으로 만드는 것 중에 특히, 동철 꽃감은 무조건 양양의 바닷바람 ‘해풍’에 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동철 꽃감만의 고유한 맛이 있다. 200여 가지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해풍은 바다에서 직선거리로 내륙의 25km 부근까지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양양지역 대부분이 해풍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풍’의 영향으로 더 특별한 맛으로 익어가는 양양의 동철감으로 만든 꽃감은 맛은 어떨까. 누가 빼앗아 먹기라도 할까봐 제일 먼저 먹어 치운다고 하는 ‘꽃감의 쪽맛’이 확실하다. 인절미를 먹을 때 느껴지는 매끈하게 부드럽고 달짝지근하면서 쫄쫄한 식감이 해풍이 미치지 못하는 오색령 너머의 영서지역 꽃감 맛 하고는 누가 먹어봐도 분명 다르다 할 것이 확실하다.



## 바닷바람, 솔바람으로 익어가는 동철꽃감

인절미를 먹는 듯 한 식감으로 동철감을 ‘떡감’이라고도 한다. 더욱이 수분이 적어 질척거리지 않는 것 또한 맛의 매력으로 경북 청도꽃감, 상주 꽃감에 견주어도 손색없다는 현북면 하광정리의 동철감 재배 농가 주인 윤학열 씨의 궁극의 자부심 섞인 주장이 옳은 해풍 맛은 양양 동철꽃감이다. 윤씨의 농가에서는 동철감으로 꽃감, 김말랭이, 아이스홍시를 만들고 있다. 대봉감처럼 너무 크지 않은 동철감을 골라 하조대 바닷바람과 소나무 숲 바람이 어우러진 산자락에서 고운 연한 주황색을 띠 때까지 말려 두었다가, 판매 하는데, 지역 사람들한테는 덜 알려져 있지만, 재 구매율이 높을 만큼 양양 동철감으로 만든 꽃감의 인지도도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해마다 꼭 요맘때면 동철감은 송이버섯과 우연히도 한 날 한 시에 먹을 때이다. 그렇다보니 늘상 송이버섯의 명성에 밀려 알아주는 이들도 드물어 양양 동철감의 처지가 애잔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홍시, 오시, 침시도 좋지만 동철꽃감을 술에 석 달 열흘 담근 시삽(柿澁)이라는 옛 전통음식법이 있다. 누구라도 편히 담글 수 있는데 겨울이 깊어진 석 달 열흘 후에 열어 더불어 나누는 인정머리를 안주 삼아 동철감이 양양의 인생음식처럼 여겨지는 동철꽃감 술 한 잔 나누면 어떨까 싶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책 이야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세상의 변화도 두려울 것 없다!”

심리학은 학문인 동시에 커다란 문을 열고 진실한 자아와 만나게 해주는 새로운 열쇠입니다. 직장 내에서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과 균형감을 찾도록 도와주어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줍니다. 더욱이 우울한 상태에 있다면 그 상황에서 자신을 끌고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심리학은 문제의 답안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심리학적 분석해보면, 타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면 사고력을 끌어올리고, 감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심리학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았고, 그 심리학이 독자들에게도 실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세상의 변화가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독자들 또한 심리학으로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모든 대화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아쉬움을 안고 다락방을 떠나야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 류쉬안 지음 / 다연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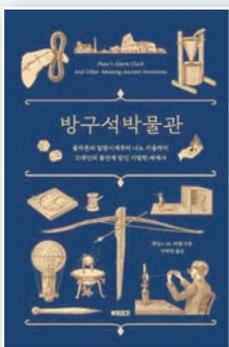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말센스  
셀레스트 헤들리 지음, 스몰빅라이프, 2019
- 프레임  
최인철 지음, 21세기북스, 2016
- FBI 행동의 심리학  
마빈 칼린스 외 지음, 리더스북, 2010

하는 순간은 오게 마련이다. 이럴 때 대화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나’와 ‘너’라는 단어 대신 ‘우리’를 사용해보라. 예컨대 “다음에는 네가 즐겁게 가격 흥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대신 “다음에는 우리 모두 즐겁게 가격 흥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명사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우리’라는 표현은 대화 당사자가 이미 같은 층의 다락방에, 같은 세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방구석 박물관

제임스 M. 러셀 지음/ 북트리거 / 2019

오늘날의 세상이 굉장하다고 여기고, 과거에 비해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고 자부하는 현대인에게, 이 책은 시기를 넘나들며 세계 전역의 놀라운 고대 기기와 발명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플라톤의 알람시계부터 바그다드 배터리, 4세기 나노 기술까지 21세기를 넘어서는 고대인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실제 전시실을 분류하며, 저자는 수십만 년의 방대한 세계사를 통틀어 의미 있는 물건 88가지를 추리고, 그 물건 하나하나의 역사를 짚어냈습니다. 저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 지식의 기원을 살펴피며 과거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납작한 토끼

바두르 오스카르손 지음 / 진선아이 / 2019

이 책은 개와 쥐가 길 위에 누워 있는 납작한 토끼를 발견하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토끼의 죽음을 기리는 개와 쥐의 순수한 배려와 이별 의식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작가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납작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심각하기보다는 재치 있게 풀어낸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운 주제에 대해 많은 상상력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 사업장명       | 인원 | 모집직종                     | 근무시간                   | 급 여              |
|------------|----|--------------------------|------------------------|------------------|
| 주현대전기 안전관리 | 1명 | 전기안전기술자<br>(전기기사 자격증소지자) | 09:00~18:00            | 월350만원           |
| 시원안전산업     | 1명 | 용접원                      | 09:00~18:00<br>(주5일)   | 월180만원이상<br>(협의) |
|            | 1명 | CAD설계원                   | 09:00~18:00<br>(주5일)   | 월180만원이상<br>(협의) |
| 청곡정미소      | 1명 | 제조 단순종사원                 | 08:00~17:00<br>(월3회휴무) | 월180만원           |
| 주오션벨리      | 1명 | 프론트사무원                   | 교대근무                   | 월230만원이상<br>(협의) |
|            | 1명 | 시설물관리원                   | 교대근무                   | 월230만원이상<br>(협의) |
| 대하측량설계공사   | 1명 | 토목측량기술자                  | 09:00~18:00<br>(주5일)   | 급여협의             |
| 설악환경산업(주)  | 2명 |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원              | 08:00~17:00<br>(주5일)   | 시급8,350원         |
| 스위트호텔낙산    | 1명 | 객실청소원<br>(일용직)           | 08:30~17:30            | 1일 8만원           |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10월 2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산불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를 소지 및 흡연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 신속한 신고가 큰 산불을 막아줍니다~

**신고 방법**

소방서 ☎ 119  
경찰서 ☎ 112  
산림청 산불상황실 ☎ 042-481-4119

**스마트산불재해앱 '산불신고'**

스마트폰에서 산불신고가 가능합니다.

www.forest.go.kr

## 신속한 신고와 침착한 대처로 산불 예방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 시 기 : 2019. 9. 26. ~ 2020. 3. 28.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문의 :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671-1390)

## 2019년 하반기 군민정보화교육

| 월별  | 기 간                         | 접수기간                 | 교 육 내 용   |
|-----|-----------------------------|----------------------|---|
| 11월 | 11. 4. ~ 11. 29.<br>(월,수,금) | 10. 27. ~<br>11. 1.  | (주간) SNS의 이해(블로그)<br>멀티미디어 입문(사진&동영상 편집)<br>(야간) 스마트폰 활용 (실생활 앱 활용, 이미지·동영상 편집)<br>ITQ엑셀 (강의 및 실습 병행) |
| 12월 | 12. 2. ~ 12. 27.<br>(월,수,금) | 11. 25. ~<br>11. 29. | (주간) SNS의 활용(인스타그램)<br>파워포인트 입문<br>(야간) 스마트폰 활용, UCC만들기<br>ITQ한글 (강의 및 실습 병행)                         |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18:30~20:30
- 신청방법 : □ 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 전 화 : 033-670-2116

##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안내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각종 조사의 표본을 제공을 위한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기초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9. 11. 6. ~ 11. 25.(20일간)
- 조사대상 : 양양군 관내 모든 거처(빈집포함)와 가구
- 조사내용 : 12개 항목(기본항목 4, 특성항목 8)
  - 기본 : 주소, 조사구분, 거처종류, 조사대상 여부
  - 특성 : 빈집여부, 건축연도, 거주가능 가구 수, 옥탑여부, 총 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농림어가 여부
- 조사방법 : 방문 면접 조사
- 문 의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033-670-2214)

## 롯데월드 어드벤처&아쿠아리움 할인 양양군 자매도시(서울 송파구)할인 혜택 안내

- 대 상 : 양양군민 본인 + 동반 3인
- 할인가간 : 2019. 3. 1. ~ 2020. 2.29.
- 할인방법 : 거주지 확인용 신분증 제시
- 우 대 율

(단위 : 원, %)

| 구 분            | 정상가격           | 할인혜택   |        |        |    |
|----------------|----------------|--------|--------|--------|----|
|                |                | 우대요금   | 할인율    |        |    |
| 롯데월드 어드벤처      | 주간<br>(09:30~) | 어른     | 57,000 | 34,200 | 40 |
|                |                | 청소년    | 50,000 | 30,000 |    |
|                |                | 어린이    | 46,000 | 27,600 |    |
|                | 야간<br>(16:00~) | 어른     | 46,000 | 27,600 | 40 |
|                |                | 청소년    | 40,000 | 24,000 |    |
|                |                | 어린이    | 35,000 | 21,000 |    |
| 롯데월드물<br>아쿠아리움 | 어른             | 31,000 | 24,800 | 20     |    |
|                | 청소년            | 31,000 | 24,800 |        |    |
|                | 어린이            | 27,000 | 21,600 |        |    |

## 치매예방! 조기치료! 가족 헤아림! 양양군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합니다.



- 위 치 : 양양군보건소 옆 신축건물(장애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2층)
- 양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문 의 : 033)670-2565(29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안보총

# 속중함

정치후원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 이 됩니다

맑은 날도, 바람 부는 날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면 길이 생기고 소중한 손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도(政道)를 걷을 수 있게...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행정안전부

지방세 고충 해결사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역할**

- 고충민원 해소
- 납세자 권리보호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질병관리본부 KCDC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진드기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 모자, 긴팔, 모자, 목수건, 장갑, 방석, 긴바지, 장화, 옷자락, 목이 긴 양말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기피제 X 기피제 O

**예방 3 풀숲 피하고**

**예방 4 씻고, 빨래하고**

전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

발행 2018. 3. 8

환경부

## 음식물, 쓰레기 되기 전 미리 줄이세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세요

적당한 양의 음식,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11월 22일  
**플라이강원**  
**양양 - 제주**  
**정기편 첫 취항**

11월 20일부터 예약 가능  
 고객센터: 1800-7770  
[www.flygangwon.com](http://www.flygangwon.com)

**양양 · 제주 오전편 운항 스케줄**

| 운항요일 | 편명    | 양양출발  | 제주도착  | 편명    | 제주출발  | 양양도착  |
|------|-------|-------|-------|-------|-------|-------|
| 월/화  | 4V501 | 07:10 | 08:30 | 4V502 | 09:10 | 10:30 |
| 수    |       | 08:40 | 10:00 |       | 11:05 | 12:25 |
| 목    |       | 07:35 | 08:55 |       | 09:35 | 10:55 |
| 금    |       | 06:50 | 08:10 |       | 08:50 | 10:10 |
| 토    |       | 09:10 | 10:30 |       | 11:35 | 12:55 |
| 일    |       | 06:40 | 08:00 |       | 09:10 | 10:30 |

**양양 · 제주 오후편 운항 스케줄**

| 운항요일    | 편명    | 양양출발  | 제주도착  | 편명    | 제주출발  | 양양도착  |
|---------|-------|-------|-------|-------|-------|-------|
| 월       | 4V505 | 16:20 | 17:40 | 4V506 | 18:20 | 19:40 |
| 화/수/목/토 |       | 17:05 | 18:25 |       | 19:15 | 20:35 |
| 금       |       | 16:40 | 18:00 |       | 19:05 | 20:25 |
| 일       |       | 17:20 | 18:40 |       | 19:20 | 20:40 |